

통합적 사고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치자. 그 동전의 모양은 어떠한지 대답해보라. 대부분은 동전의 모양을 원형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직선으로 보일 수 있고 타원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요즘은 이렇게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시대이다. '다르게 생각하자(Think Different)'가 시대의 트렌드를 상징하는 문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은 도대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발견과 발명 그리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 기존의 것을 부정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방식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동일하지 않는 기존 방식들을 긍정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다르게 보는 것의 전형이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메라 폰은 사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을 통합한 제품이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한 것이다. 마케팅의 혁명이라고 불리며 오프라인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전략으로는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는 한계에 도달하자, 경쟁자였던 오프라인 시장과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다르게 보기 그리고 통합적 사고로 창의력 있는 목회를 실천하는 목회자가 있다. 수원 보배로운교회의 류철배 목사, 창의력이 평평 넘치는 류 목사의 목회현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1. 부부제자훈련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하는 제자훈련이요? 사실 비정통(?)이지요.” 보배로운 교회의 독특성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류 목사는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새색시가 아무리 친정에서 음식 맛을 잘 전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집가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집은 시집대로의 상황도 있고 사람도 다르니까 음식 맛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재료는 똑같지만요. 저도 옥한흠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배웠지만, 이곳에 와서 제자훈련을 하다보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철배 목사가 비정통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부부제자훈련’이었다. 류 목사는 제자훈련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실시한다. 부부제자훈련과 싱글제자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부부제자훈련은 부부가 함께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고, 싱글제자훈련은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다거나 훈련을 받을 상황이 아닌 사람들을 따로 모은 것이다.

그런데 부부제자훈련이라고 해서 부부가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단위로 모집은 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반과 여자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제자훈련이라고 부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모집을 한 후 첫 번째 6주는 부부가 함께 훈련합니다. 그런 다음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누어서 26주를 훈련하지요. 이렇게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교재로 32주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부부를 모아서 12주 동안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제자훈련 일정이 32주가 아니라 44주로 늘어났단다.

“저희는 여름방학도 없습니다. 일년이 54주인데 44주 동안 훈련하다보니, 교회일정 때문에 중간에 휴강하는 것을 빼고 나면, 44주도 사실 빡빡한 일정이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서로 휴가 기간을 맞추어서 2주 정도 휴강하는 것 외에는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12주 동안 부부가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나면 주일 저녁에 배 때 부부앵콜 결혼식을 한단다.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혼여행도 가고요. 지금까지 제주도를 세 번 가고 남해안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겸 졸업여행을 다녀와서야 비로소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제자훈련을 실시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혹시 있을까? 류 목사는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로부터 받은 가정사역훈련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어떻게 하면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에 송길원 목사의 가정사역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탄생된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류 목사는 제자훈련과 가정사역을 통합하여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류철배 목사

이렇게 부부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그래서 싱글제자훈련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싱글제자훈련이 없다면, 제자훈련의 대상과 자격이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제자훈련의 원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이러한 독특한 부부제자훈련방식은 교회가 위치한 수원 영통의 상황을 고려한 독창적 사례이다. 수원 영통과 같은 신도시에는 특별히 30대 부부들이 많이 살고, 남자들의 교회 참석률이 높다. 부부제자훈련은 이런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은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울의 갑푼이 아무리 좋아도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처럼, 부부제자훈련 역시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류철배 목사로부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합해 자신만의 모델을 만든 창의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2. 봉사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류철배 목사의 통합적 사고는 봉사와 전도를 통합하는 데도 독특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이다. 수원 영통 지역에는 30대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지만, 노인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단독세대로 살기도 하고 젊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게 되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영통 지역이란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주변은 대부분 24평 아파트입니다. 전형적인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 평수에서 아들 부부, 손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노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수원 보배로운교회 류철배 목사는 서로 동일하지 않은 기존 방식들을 긍정적으로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 날에는 지역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시간도 갖는다. 임시 미용실을 개설해서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있다. 이런 섬김을 위해 성도들이 직접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현재 약 백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섬김의 날에 복음도 전하라는 질문에 류철배 목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거나 느끼고 교회를 친숙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하지만 전도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순수한 봉사가 오히려 보배로운교회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전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 예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개최하는데, 보배로운교회 바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지역 행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 믿는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바자회에 참여한다. 이 바자회의 수입금이 전액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보배로운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들은 보배로운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인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봉사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급한데, 굳이 봉사까지 하느냐?”고 말한다. 봉사를 하는 교회들조차도 봉사를 전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순수한 봉사는 예수님이 선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선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전도와는 관계 없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메시지이다. 보배로운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순수하게 지역 사회를 섬길 때, 지

역 주민들도 이런 순수한 섬김을 이해하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전도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봉사를 했더니 전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수원 보배로운교회. 이 교회의 성장에는 봉사와 전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류 목사의 창의력이 있었다.

3. 주일학교 교육에 전인교육의 개념을 도입하다

보배로운교회는 주일학교로도 유명하다. 장년 출석이 550명인데, 주일학교도 500명이 넘는다. “교회 주위에는 30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아이들에게 류 목사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렸을 때 제 마음 속에는 목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깨워주는 이가 주변에 없었던 거지요. 때문에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멘토가 있어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한 목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책도 더 많이 읽고 음악도 열심히 듣고 악기도 배우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만은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심어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거지요. 마냥 뛰어노는 것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찰흙이 굳어지기 전에 그 형상을 빚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류 목사는 작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이 시간에는 우리말을 안 쓰고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강사는 성도들 중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자원해서 맡았다.

“5월부터는 이 영어마을을 방과 후 영어교실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씩 영성훈련을 겸한 영어공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 SOT(School of Tomorrow)라는 영어교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에 특별활동을 포함시켰다.



매 주마다 음악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첼로, 바이올린 반 등을 개설하고 있다. “강사들은 교회 안팎에서 프로 수준의 강사를 초빙합니다. 이 음악교실을 통해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놀다 간다는 개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음악교실은 각 부서별로 대략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목요일에는 유치원에 가기 전의 아이들을 위한 뮤직가르텐(음악유치원)이라는 음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유치원 다니는 연령의 아동들이 레고를 만들며 공부하는 레고에듀케이션도 실시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어나 음악까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느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신앙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주일학교 교육 역시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 아닐까요? 대형교회가 기독교적 교육정신에 입각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저희가 방과 후 영어교실이나 주일 음악교실을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학교를 활성화하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류 목사가 시도하고 있는 주일학교와 일반교육의 통합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모델은 아니겠지만, 신앙교육과 일반교육을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시도하는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4. 소그룹과 동아리,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배로운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남녀 비율은 약 4:6 정도이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남녀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 이



런 남녀 비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래 이 지역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다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남자들을 모으기 위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했지요.”

처음 시도했던 것은 스포츠 동아리였다. 교회에 출석하는 남자들이 구역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고 성경공부에 익숙하지 않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 보았다. 류 목사 자신이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동아리를 통해서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가 없을 때는 모임이 끝난 후에 술집에 가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사실 모으는 것만 생각했지, 영적 성장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남자들은 훈련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의 모임도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일반적인 사교 클럽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부분적인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던다. 동아리라는 모임 자체가 나빠서 실패했다기보다는 말씀의 교제나 섬김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남성동아리에 훈련의 개념과 봉사의 개념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보배로운교회의 경우 여자는 지역별로 구역이 편성되어 있지만, 남자들은 취미나 봉사별로 동아리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먼저 이 동아리들이 말씀을 배우는 소그룹이 되도록 만들었다.

여자들의 구역처럼 남자들도 동아리별로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공부를 한다. “시간적으로 성경공부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새벽예배가 끝나고 모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생긴 장점이지요.”

또한 활동을 스포츠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관리, 청명산, 축구1, 축구2, 골프, 볼링, 찬양, 환경관리, 산사랑, 영화감상, 영상, 색소



폰 등의 열두 개의 동아리가 생겼다.

류 목사가 시도하고 있는 남성동아리가 어느 정도 남자들이 교회에 끌어 모으고 또 사역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교회에 출석하되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남자 성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리라는 일종의 다리를 통해서 남성과 교회를 연결해보려는 류 목사의 시도는 그 자체로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취미와 신앙은 다르다'라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사고를 '이것과 저것'의 통합적 사고로 이해해 보려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이다.

교회성장학자인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원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도 유효한 것이라면, 방법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 동안에만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비추보면, 류 목사가 고안한 남자 동아리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절한 시간과 상황에서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통합적 사고 방식으로 교회의 남성문제를 풀어보려는 류 목사의 목회 원리는 두고두고 곱씹어보아야 할 도전임에 틀림없다.

5. 주일은 예배당, 평일은 지역 봉사센터

보배로운교회는 2003년 5월 지금의 교회 건물을 마련했다. 이 건물은 원래 레스토랑 건물로 지어진 것인데, 경매에 들어갈 처지에 놓이자 구입한 것이다. 애초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데도 구입한 것은 교회 건물의 기능에

대한 류 목사의 독특한 철학을 성도들이 이해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대뜸 질문을 던지며 류 목사는 반박 웃었다. "법당, 기도원, 예배당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들어서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보면서 거의 모든 건물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지어놓은 것을 보고 탄식할 지경이었다.

"교회가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려면 평일에는 교회 건물을 지역 사회에 개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개방이 가능하도록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류 목사는 지금의 건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입했다. 예배당 내부도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공연, 전시가 가능한 멀티 기능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설교를 하는 강단도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무대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이 지역의 소규모 피아노학원들이 해마다 합동발표회를 갖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었지요. 사실 구민회관 같은 것을 빌리자면, 시간도 안 맞고 공간이 너무 넓어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적합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예배실은 크기도 적당하고 편의시설도 좋지 않습니까?"

류 목사는 보배로운교회의 3대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지역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선교 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세상과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물론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개방해야 하나님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의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지역 사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류 목사의 통합적 사고 속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6. 실버타운과 아가페타운을 통합하는 꿈

보배로운교회는 선교센터, 실버타운, 아가페타운을 건립하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에서 선교센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버타운과 아가페타운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류 목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7절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24평인데, 그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따라서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실버타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배로운교회가 왜 성도들에게 다양한 봉사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실버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섬길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이 다양하게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켜서 나중에 실버타운에서의 봉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기 위해 봉사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류 목사의 통합적 사고가 반짝거린다.

류 목사는 실버타운 외에 고아들을 돌볼 '아가페타운'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같은 비율로 고아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역시 교회가 나서야 할 책임입니다."

류 목사는 아가페타운을 따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버

“보배로운교회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사고를
‘이것과 저것’의 통합적 사고로
빛을 발하고 있다.”

타운 내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실버타운과 아가페타운이 함께 존재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린 아이들이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돌볼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좋고, 아이들은 의지하고 따를 분들이 있어서 서로 좋은 것이지요."

류 목사는 앞으로 성도들이 아가페타운의 아이를 한 가정에 한 명씩 영적 자녀로 입양해서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돌보도록 하겠다고 한다. 류 목사의 결연한 다짐에는 단순히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실려 있었다. 한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엔트로피를 예견하는 지도자

빌 하이벨스는 "지도자란 모름지기 한 조직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엔트로피를 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류 목사 역시 장년 500명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분명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목양이라는 측면 외에 관리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한 사람의 목회만 될 수 없습니다. 부교역자들을 보강하여 팀워크 목회를 시도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져서 교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개척에 성공하고 중형 이상의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척에 몰두하다보면, 모든 문제를 담임목사가 다 알아야 하고 조정해야 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해지게 된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했는데도 담임목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결정하려고 하다보면 본인도 탈진하고 성도들도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류 목사는 바로 개척형 리더십에서 위임형 리더십으로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 류 목사와 보배로운교회가 이 변화를 잘 실천해서 새로운 도약으로 삼을 수 있을까? 앞으로 지켜볼 과제이지만, 우리는 보배로운교회가 이 도전에 멋진 응전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담임목사인 류 목사에게서 핵심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십,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는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송정현 목사〉